

AUTHOR 홍치모

TITLE 문예부흥에서 종교개혁으로

IN 개혁주의

21호 (6, 1967): 20-24.

문 (75) 성화(聖化)는 무엇입니까?

답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인데 하나님이 이 세계의 기초를 두시기 전에 거룩 하도록 택하신 사람들이 배가 차서 성령의 힘있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저희에게 적용 하시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의 전 인격을 새롭게 하고 (α) 생명이 이르는 회개의 씨를 가지게 하고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저희 심령속에 두시고 (β) 그 모든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증가 강화하시며 (ε) 죄에 더욱 더 죽게 하시고 생명의 최선을 향상시켜 줍니다 (δ).
(α) 엡 1:4, 고전 6:11, 살후 2:13, 롬 6:4-6, 엡 4:23, 24, 빌 3:10
(β) 행 11:18, 요일 3:9 (ε) 유 20, 골 1:10, 11 (δ) 롬 6:4, 6, 14

(42페이지 부터)
도 간수에게 감사하다 뜻이 웃음을 띠고, 복도 건너의 나를 향해 밝은 얼굴을 보였다. 어찌하여 아버지는 저렇게 밝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다.

낮에도 여전히 물만 주었다. 그때 나는 환멸을 느끼고 꼭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 불렀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렇게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주님은 거절하셨다. 벌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끝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지금 와서 반성하면 기도의 응답이 당장에 주어진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의 일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깊이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요구만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내고 불평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밤은 2일 간의 강제적 단식 때문에 위는 무감각하게 되고 몸도 쇠약하여 만항성도 약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기와는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혼을 의지하는 것 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니 버리지 마시기를 벗

빈이고 몇번이고 기도했다. 생각 밖에 드디어 4일째 아침에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빵이 나왔다. 나는 눈을 감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빵을 뜯어 천천히 먹었다. 약해진 나의 몸은 다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나는 식사와 양이 많아지기를, 또 식망 되기를 다시 기도했다.

주는 내가 원하던 배가 아니고 필요 한 배에 식물을 주셨다는 것에 눈을 떠 줄 것이며,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때에는 만드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내게 자유를 주게 될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이기적인 생각대로 기도하고 이리 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8월 2일 화요일 아침 나는 다시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또 다시 아침 식사에는 커피 뿐이고, 낮, 저녁도 멀건 찻물 뿐인 날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다음 날도, 다음 날도 9일 간이나 계속되었다. 죄수의 반수는 죽고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는 일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드렉스텐 형무소에 있는 기간에 아버지와 내게 일어난 일은 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존재 하시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을 영원히 확신시켜 주셨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서 평

문예 부흥에서 종교개혁으로 Renaissance to Reformation

by Albert Hyma

W. 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s Rapids, 1951, Michigan

홍 치 모

1924년 Hyma 교수가 "The christian Renaissance, A History of the Devotio Moderna" (Grand Rapids, Eerdmans, 1924)를 영미사학계에 발표하자 문예부흥사와 종교개혁사를 연구하고 있는 학도들에게 비상한 주목을 끌게 되었거니와 그 이후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학술지에 발표한 것을 모은 것이 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Hyma 교수의 새로운 연구는 종교개혁사 뿐만 아니고 문예부흥사 서술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을 형성시켜 놓았다. 종래의 역사가들은 종교 개혁사를 서술할 때 Luther가 종교 개혁을 절규치 않으면 안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타든지 Luther 개인의 사상적 배경이나 시대의 사조들 종합적이면서 분석적으로 깊이 고찰함이 없이 시야가 좁은 한계 내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더구나 Renaissance 운동과 종교 개혁운동 상호간의 역사적인 유기적 관계 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술함이 없이 스쳐 지나가 버리곤 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가들이 종교 개혁을 서술할때 흔히 Luther가 개혁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영국의 Wycliff (1324~1384)와 Bohemia의 Huss (1369~1415)를 개혁운동의 선구자로 지적하

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별 다른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나 Huss가 순교한 후 Luther가 로마 법학 및 교회에 대하여 반기를 들기까지 약 백년간은 그날 공백기간인양 별다른 서술도 없었던 것에 대하여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즉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종래의 역사가들은 이 기간에 있어서 북구 특히 하부지역 (lower countries)에서 발생한 "Christian Humanism 운동"에 관해서 흥미나 관심조차 표명함이 없이 그대로 묵과해 버려 왔던 것이다. 이태리 Renaissance 운동에 있어서 15세기 (Quattrocento)가 문제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구 문예부흥운동에 있어서는 이 15세기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Hyma 교수는 이 저서의 제목이 명시하여 주는바와 같이 북구 문예부흥운동에서 종교 개혁운동에 이르는 약 백년간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Christian Humanism" 운동을 역사 무대에 등장 시킴으로써 북구 문예부흥운동에서 종교 개혁운동에 이르는 기간을 의미있게 그리고 양 운동에 있어서의 상호 관계성을 결부 시키는데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Hyma 교수가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북구 문예 부흥운동의 기원이 되는 14세기 화란의 공동 생활의 형태단의 성립 및 그들의 활약상인 바 이들은 Italy에서 발생한 문예 부흥운동(인문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어디까지나 중세기적인 기반과 사상적 배경하에서 발생하여 활약한 것인 만큼 어디까지나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토착적성격(autochthonous nature)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Hyma 교수의 문예 부흥사관(북구를 중심으로)을 평할때 Medievalist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서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1924년 이래 단위로 발간한 몇 권의 저서가 절판되었음으로 그것들을 재 출판할 수도 있겠으나 우선 현재까지 연구한 모든 문제를 통일적으로 재 정리하는 의도에서 이 책을 발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부 22장에 591부가 되는 이 책은 각 장마다 독립적인 논문의 체제와 내용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것이 장과 장 사이의 내용을 연관성있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데 묘미가 있는바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므로 이하 Hyma가 집필한 각 장의 제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 |
|---|-----|
| I Church and State in the Middle Ages | 13 |
| II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s | 56 |
| III Politics in the Age of the Renaissance | 95 |
| IV The "Devotio Moderna" | 124 |
| V The Humanists | 139 |
| VI Hegius, Agricola, and Gansfort | 151 |
| VII The Youth of Erasmus | 174 |
| VIII Erasmus in the Monastery | 186 |
| IX Erasmus and the Oxford Reformers (1493~1503) | 209 |
| X The Background of Lutheranism | 250 |
| XI The Development of Luther's Theology | 526 |
| XII The Economic Theories | |

| | |
|--|-----|
| of Martine Luther | 279 |
| XIII Luther's Political Ideas | 306 |
| XIV Reformers Before the Reformation in France | 337 |
| XV The Career of John Colvin | 375 |
| XVI Calvin's Political Views | 413 |
| XVII Economic Ideas of John Calvin | 440 |
| XVIII Protestantism and the Rise of Capitalism | 467 |
| XIX Communism in the Sixteenth Century | 505 |
| XX New Views on Pivine Inspiration | 522 |
| XXI The Reformation in England and Scotland | 540 |
| XXII The Reformation in Retrospect | 571 |

이상 열거한 목차중에서 제 7 장은 Hyma 교수가 화란교회사 잡지(Nederlandsch Archief voor Kerkgeschiedenis)에 발표한 논문으로 Erasmus 연구에 있어서 비극을 대표할 수 있는 저작이다. 그리고 제 9 장은 "The Christian Renaissance"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다시 재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Luther와 Calvin의 정치관 경제관 및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발생에 관한 제 논문은 1937년에 발표한바 있는 "Christianity, Capitalism and Communism"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수록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 관계상 전 22장을 총망라하여 분석과 소개 및 비평할 수가 없으므로 이들중 몇 장만을 추려서 간략하게 소개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Hyma 교수는 제 1장에서 "중세 교회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논할때 "예수의 국가관"에서 부터 시작하여 중세 말 문예 부흥시대까지 교회와 국가의 상호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할것 같으면 예수는 이 세상의 국가와 통치자에 대하여 큰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형성되어 가야 할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도 여하한 형태의 것이 인간들에게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나 교훈 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더구나 예수의 제자인 성 바르톨로마 성 바울도 국가문제에 대하여는 오직 "지배와 복종"의 원리만을 강조 하였을 뿐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로마 제국 말기에서 German 민족이 이동하여 새로운 중세 국가가 형성되기까지는 신자가 국가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일정한 정치적 생활규범이 없었다는 것이다. 로마제국이 강요하던 위상숭배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순교를 당 하였을 뿐이라고 한다 (P16). 그러나 Augustine이 "선의나라"(City of Good)가 중세사회에 끼친 사상적 영향은 대단하여 결과적으로 후세와 신학자들과 교황청의 성직자들은 Augustine의 "선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불가견적 또는 초자연적 국가를 지나치게 해석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어 따라서 성직자의 지위도 지상 국가의 국왕 보다도 우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4세기나 5세기경에 와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직자들이 세속사회에서 특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사실 만을 보고서도 능히 알 수 있다고 한다 (P23).

그리하여 11세기 초엽에 이르러 헤리 4세와 법왕 그레고리 7세의 충돌로 발생한 "Cannossa의 사건"은 실제로 교회가 국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 후에도 중세의 황금시대의 신학자 Thomas Aquinas, Marsilius 그리고 Dante의 국가관을 차례대로 당시의 역사적인 현실과 상호 관련시켜 가면서 그들의 국가에 대한 사상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제 2 장은 중세경제의 발전을 논하고 있는 것인바 중세사회의 중심기구였던 봉건제도 즉 장원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봉건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에서 지금까지도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빚에 대한 가치관 내지는 저축이

신앙논리상 타당. 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하여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역학적 해석되어 왔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우는 것은 이윤(Usury)에 대한 해석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자는 그것이 경우에 따라 최악의 성질을 내포할 수 있고 반면에 때에 따라서는 상인들의 사업을 편리하게 도모할 수도 있는 소인을 내포 하고있는 것이다.

Hyma 교수는 언급하기를 이자 그 자체는 신약성서의 누가복음 1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미 현실적으로 인정되어 있었으나 Thomas Aquinas는 이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여 심지어 최악시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석하는데 노력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종교 개혁시대의 개혁자들 까지도 이자에 대한 시비는 그 시대의 경제변동의 현상에 따라 절정 하였다는 것이다.

제 3 장은 주로 Renaissance 시대의 정치사상을 취급하고 있다. 봉건제하의 위기 속에 처한 법왕청을 비롯하여 신봉 민족국가 간의 대립과 빈번한 전쟁은 정치적 불만을 끊임없이 조성시키고 있었음으로 Italy의 Macchiavelli는 이 위기와 불안을 정치적 기술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君主論"을 쓰게 되었고 영국의 Thomas More는 현실을 떠난 어떤 세계에서 복잡하고 모순이 가득한 모든 문제를 해결지어 보려고 "Utopia"를 썼다고 말한다. 특히 Erasmus는 Christian Humanists의 입장에서 논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平和論"을 썼다고 말하면서 이 3인의 독특한 성격과 개성 그리고 현실에 대처한 그들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제 4 장은 "Devotio Moderna 운동"의 간략한 서술로서 필자가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Brethren of the Common life"의 요약이다. 즉 이 운동이야 말로 북구 문예 부흥운동의 원천이요 모체였다고 지적 하면서 16세

기 종교 개혁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제5장에서는 Italy Humanist 들의 성격을 고대 소피스트(Sopist) 들과 비교하면서 언급하기를 대다수의 역사가들이 이태리 인문주의자들을 가리켜 천성적적(天性的的)으로 비종교적이고 복구인문주의자들은 그들 보다는 生來的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상적인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동시에 "Devotio Moderna" 운동도 새대를 통과 하면서 하등의 변질됨이 없이 如終如一하게 지속시켜 왔었다고는 할수 없으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태리 인문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울러 인정하고 있다.

제6장은 복구 인문주의 운동의 대표적 선구자인 Hegius, Agricola, Gansfort 에 대한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3인은 모두가 Devontore에 있는 공동생활 형제단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Erasmus를 직접 지도하였다. 우리의 관심과 흥미는 Erasmus가 이들로부터 어떠한 사상적 감화를 받았으며 어떠한 내용의 인문주의적 교양을 물려 받았는가 또한 Erasmus는 그것을 여하히 소화 시켰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구 과제라고 교시해 주고 있다.

제7장에서 9장까지는 Erasmus의 성장과 수도원 생활을 취급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2, 13, 16, 17, 18, 19의 장장은 Luther와 Calvin의 정치관 및 경제관을 논하고 있는 바 이것들을 전부 합쳐서 한 제목으로 서술 하였다고 볼수 있는 것이 Robert. W. Green 교수가 편집한 "Problems in European Civilization"의 한 켄리스로 있는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속에 "The Economic Viens of the Protestant Reformers"라는 제목으로 요약해서 게재(掲載)되어 있다. Hyma 교수의 결론을 말

하자면 근대 자본주의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 시간에 도달했을 때 자본주의는 Protestantism의 강력한 논리적 기반위에서 발전하였다는 Marx Weber의 이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에서 있다. 그의 견해에 의할것 같으면 화란이나 스위스에서는 자본주의가 한창 성장하고 있을때 신교도들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냉각 상태를 띠지 못했고 반대로 신앙 생활의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을때는 경제적 불경기 내지는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Hyma교수가 이론을 전개 시키기 위한 단순한 구실이 아니고 실증적인 조사에서 일어난 결론인 것이다.

또한 17, 18세기의 Calvinism도 초기 개혁자들의 사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변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내부 구조도 복잡화 되었다는 사실을 고리할때 조금하게 결론을 얻으려고 이론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발견하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집중시켜야 될 것 같다.

끝으로 22장에는 종교 개혁사 서술에 대하여 회고하고 있다. 종교 개혁 이후 금일에 이르기 까지 서술한 종교 개혁사를 검토하여 신. 구교 양쪽이 범한 과오를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좀더 냉철한 입장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비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Notre Dame University의 John A. O'Brien 교수가 쓴 "종교 개혁의 원인과 결과"를 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O'Brien 교수는 여기서 언급 하게 될 두 사람의 주장을 인용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세속적 요소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콜럼비아 대학 교수였던 James Harvey Robinson氏는 종교개혁의 [종교적 요소가 현대적 견지에서 따대 평가되어 왔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든지 또 Henry Charles Leo 교수가 케브릿치 현대사총서에서 말한 바 「루터가 반역을 권기시킨 동기는 遡因이든 近因이든 간에 모두 心靈的이라기 보다는 아주 세속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개혁에 부수되는 종교적 변화란 것은 간주해도 무방하니 사실 종교적 개혁이란 "종교개혁"의 목적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은 곧 루터가 종교 문제에 관하여서는 거의 언급치 않고 모두 당시의 사회, 재정, 교육, 산업 및 일반도덕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였기 때문에 이상 두 학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서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루터는 "독일귀족들에게 교향"이라는 글을 쓴 것을 유일한 증거로 내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의 저서중에서 정치, 경제에 관한 것은 그의 신학논문에 비할 것 같으면 새발의 피도 못 된다). 이와 같이 구교사가(舊敎史家)가 그들

된 편견으로 빠지게 된 원인이 그 자신의 선입관편이라는 고결에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일부 자유주의적 신교사자들의 과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루터, 쾰렌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 때문에 개혁을 일으켰는가 그렇지 않은 종교적 문제 때문에 개혁을 일으켰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최담을 Catholic 측과 일부 신교측 자유주의사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근 600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쓴 것이 바로 이 저서인 것이다.

미국 사학계에서 처음으로 역작(力作)이라고 불리우는 "종교 개혁의 시대를 발표한 저서로서 자유주의사가였던 Preserved Smith 교수를 위시하여 그 추종자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구교측을 대표하는 사가로서 Fohannes Farnsen, Heinrich Penifle, Hartman Grisar, Poul Mejunke, Fohn Fisher, Fohn A. O'Brien 등 보다는 오히려 못지 않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식주이 ▶

이 돈으로 성경을 사 주오

푼푼이 모은 저금통을 깨뜨려

지난 4월 제일영도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성경을 가지자"라는 포어를 내걸고, 성경 가지기 운동을 벌였다. 주로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성경을 갖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들과 집이 가난하여 성경을 살 수 없는 학생들을 조사하여 "어른들이 성경을 사 주어 성경없이 교회에 나오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교사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많은 교인들이 너도 나도 한 두 권씩의 책값을 헌금하였는데, 모인 5,472원으로 78권의 성경을 사서 성

경없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종교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다. 더구나 이 운동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는 인정미담 한 토막이 남아 좋은 산 교육이 되고 있다.

이야기인즉 부산 서중 2학년에게 학 중인 송재근군은 푼푼이 저금통에 모아 둔 돈을, 통째로 "성경 사는 데 보태 써 주십시오"라는 쪽지와 함께 교사회의를 하는 선생님들 옆에다가 두고 가버렸는데, 2개의 저금통 속에는 동전, 지전 모두 합쳐서 792원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송군의 가족은 모두가 성실한 교인들이라 하며 송군은 공부도 잘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학생이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다.